

# 노관규 순천시장, 특별교부세 58억 원 확보 위해 '동분서주'

##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7건 발굴, 58억 건의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광폭 행보에 이어,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7건을 발굴, 지속적인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순천시가 건의한 사업은 ▲강변

로 녹지조성사업(20억) ▲산림 관련 다목적창고 건립사업(4억) ▲해룡육교 성능개선사업(12억) ▲승주중대교 교량재가설 사업(13억) 등 7개 사업으로 총 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변로 녹지조성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동천, 강변로, 저류지를 하나로 연결해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을

원도심까지 유도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해룡육교 성능개선사업, 승주중대교 교량재가설 사업은 준공된 지 28년 이상 된 노후교량으로, 철근이 노출되고 차량 통행시 상부구조가 탈락되는 등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업이다.

노관규 시장은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면면을 잘 헤아려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상반기에 5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주춧돌이 될 지방교부세 및 국비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모든 시민 30만 원, 만 19세 이하 40만 원 추가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8월 30일~9월 29일 지급한다고 최근 시의회(의장 서영배)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이며,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575억여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컸으나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 체

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주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수단은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한다.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의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희·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 곡성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지급

곡성군이 6.25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6월부터 매월 5만원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존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을 초청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현황 설명, 아동권리 교육, 부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 제공

## 여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개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을 초청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현황 설명, 아동권리 교육, 부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는데 깊이 공감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담긴 부채를 활용해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행사가 이어졌다.

여수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6개 부서에서 14개 분야 1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지킴이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 물놀이 사고 예방 총력 실과장 정책토론회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강조

구례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적인 계도활동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 꼼꼼한 규정수행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지시하고, 이어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철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철저 등 적극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을 포함해 수많은 계곡들이 있어 여름철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

한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례군은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선발해 교육을 마치고 곳곳에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고, 8월 31일까지 외국유원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한다.

/심간식 기자